

'24년 5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광주문화방송

1. 회의 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사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24 -3	5.23	회의실	11/13	4	1	16	○	-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강필오·고아라·곽선희·김안나·김영신·송경용·오광호·이상길·이숙희·임동훈·조경완(11명)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김낙곤(사장), 김주호(경영본부장), 김철원(보도본부장), 정석훈(경영심의팀장)

- 경영진 외 : -황형철(경영심의팀 부장)

2. 심의 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시정요구) 및 시청자권익보호 등의 논의 안건(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0	5	7	0	1	13	0	13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3	0	0	13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 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 다뤄주길 바람	<뉴스데스크> ‘미래차 산업 국비 지원 해달라’(5.29), 나주 영산포 흥어거리 활성화, 어떻게?(6.13), 어느덧 K-푸드 대표주자(6.13) 등 방송 조치	’24.5.
”	5.18 왜곡 등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 방송 필요	<뉴스데스크> 5.18 진상규명..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5.31), 옛 국군 광주병원터, 도시공원으로 재탄생(6.2), <뉴스투데이> 이대로 끝낼 수 없는 발포명령자 규명(5.30) 등 방송 조치	”
”	군 공항 이전 관련 심도 있는 보도 바람	<뉴스데스크> 두 번째 설득 나선 광주시(5.30), 강시장 “군민 직접 설득하겠다”(6.3), 3자 회담 의제는 ‘군공항 소음대책’(6.16), <5시 뉴스> 광주시, 내일 무안서 통합공항 이전 캠페인(5.29) 등 방송 조치	”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람	<뉴스데스크> 4년 간의 조사.. “부실하다” 비판(5.23), “2기 진조위 출범 필요”(5.31), 집단 학살 계엄군 고발(6.12), <5시 뉴스> 양민학살·내란목적 살인 계엄군 고발 최종 의결(5.31), <시사 용광로> 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규명 조사(5.23) 등 방송 조치	”
”	5.18 헌법 전문 수록 의제화를 위한 보도를 바람	<5시 뉴스> 5.18 헌법 전문 수록 건의안 채택(5.28), 국회 간 강기정	”

		“5.18개헌특위 국비 절실”(6.14) 등 방송 조치	
교양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제 작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길 바 람	<풍류달빛공연>(6.15) 방송, 디지털 콘텐츠 <얼씨구TV> 제작 운영 등 조치	”
”	<광주MBC 보다>,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 식당 등 소개 바람	<광주MBC보다> 고흥 청년마을 (5.27), 열대과일 체험농장(6.3), 퇴 근길 서울푸드(6.10) 등 방송 조치	”
”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남도탐구생활>, 뉴스탐구생활 고정 코너, 탐구생활군 담양(5.28) 등 방 송 조치	”
”	<남도탐구생활> 지역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 람	<남도탐구생활> 초록초록 ACC산책 (6.5), 피아노의 섬 자은도, 라이트 시티 DJ 퍼포먼스(6.6) 등 방송 조 치	”
”	<테마기행 길> 지역의 관광과 먹거리 정보도 다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 길 바람	<테마기행 길> 구례편(5.24) 제작, 방송 및 주간 정규 편성 중	”
”	<남도탐구생활> 조선대 장미원 편, 인 터뷰 시 자막이 들어가길 바람	편성 책임자 및 담당 PD 의견 전달 조치(5.27)	”
”	<남도탐구생활> 미담 발굴해 소개해 주길 바람	<남도탐구생활> 오월과 가치! 학교 에서 배우는 5.18(5.23), 예스키즈 존(5.29) 등 방송 조치	”
”(방송 통심의 위원회)	광고화면 송출 중 갑자기 검은 화면으 로 5초 정도 방송함. 사과방송 등 방 송 사고 이후 조치가 없었음	편성 책임자 및 송출 담당자 의견 전달, 유의 권고 조치(5.27)	”
합계		13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 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가: 2000.0 ~ 2000.0)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가)
해당 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홈페이지에 전문 공개

나. 상시의견수렴 실적

상시의견수렴방법	내용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 메일	해당 사항 없음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 다뤄주길 바람	지역경제 주체들의 다양한 노력을 조명하고 보도하겠습니다	○		
"	5.18 왜곡 등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 방송 필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5.18 왜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군 공항 이전 관련 심도 있는 보도 바람	군공항 이전 관련 기획보도를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람	기획보도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5.18진조위의 활동을 다각도로 검증했고 앞으로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		
"	5.18 헌법 전문 수록 의제화를	5.18 헌법 전문 수록과 관련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 고	반론
	위한 보도를 바람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겠음			
교양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길 바람	<풍류달빛공연>을 매월 특집 제작하고 있으며, 국악 전문 <얼씨구TV> 디지털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음	○		
"	<광주MBC 보다>, 가정의 달 맞아 가족이 함께 갈 수 있는 공간, 식당 등 소개 바람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광주MBC 보다>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람	지역 소식을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에 더욱 신경을 쓰겠음	○		
"	<남도탐구생활> 지역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람	크고 작은 축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민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테마기행 길> 지역의 관광과 먹거리 정보도 다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람	전국 MBC 계열사에 편성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광주와 전남 시군의 역사와 문화, 먹거리 등 깊이 있는 소개를 통해 지역 관광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	<남도탐구생활> 조선대 장미원 편, 인터뷰 시 자막이 들어가길 바람	필요시 자막을 적극 활용하겠음	○		
"	<남도탐구생활> 미담 발굴해 소개해 주길 바람	다양한 미담을 발굴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		
기타(방송통심 의위원회)	광고화면 송출 중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5초 정도 방송함. 사과방송 등 방송 사고 이후 조치 가 없었음	방송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음	○		

시청자위원회 회의록(2024년 5월)

일 시		2024. 5. 23. 목. 오후 5시	장 소	회의실
참석자	위원회	강필오, 고아라, 곽선희, 김안나, 김영신, 송경용, 오광호, 이상길, 이숙희, 임동훈, 조경완(11명)		
	회사	김낙곤 사장, 김주호 경영본부장, 이승철 콘텐츠본부장, 김철원 보도본부장, 정석훈 경영심의팀장(5명)		

■ 회의 내용

- 조경완 위원장 : -마지막 위원회 회의다. 바쁘신 가운데 많이 참석해주셨다. 그동안 광주MBC에 대한 애정으로 가지고 프로그램 모니터링은 물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각자 활동하고 계시는 분야의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제시를 해주신 것 같다. 이 점이 시청자위원회의 역할이고 지역방송 발전에 이바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수고하셨고,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다.
- 김낙곤 사장 : -마지막 임기 회의인데 많이 참석해주셨다. 그동안 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위원장님, 부위원장님과 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참석해주신 위원님 모두 감사드린다.
- 조경완 위원장 : -업무보고를 해달라.
- 이승철 본부장 : -신설 매거진 프로그램 <남도탐구생활>을 준비하고 있다. <풍류 달빛 공연> 2회 녹화가 광주과학관에서 5월 4일 진행됐고, <2024 영산강 그란폰도 in 나주> 행사가 5월 11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김영록의 DJ 이야기> 대담 녹화가 5월 13일 열렸다. 주요 계획으로 <테마마행 길> 구례 편이 전국 송출되며, 라파 제작 지원을 받게 된 <전설의 타이거즈>와 <더 프레지던트>, <얼씨구TV>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도 계획돼 있다. 라디오 춘하계 개편은 6월 3일 예정이다.
- 김철원 본부장 : -5.18 44주년 연속보도 <다시, 체로키 파일을 열다>를 보도했다. 5.18 당시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한국과장을 단독 인터뷰했고, 미국의 범정부 소통 채널 코드명인 '체로키 파일' 정보 공개 청구했다. 5.18진조위의 조사 미흡을 지적하고 추가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효과가 있었다. 5.18 헌법전문 수록 의제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5.18 왜곡을 뿌리 뽑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주요 과제임을 인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5.18 기념일 당일 집중 보도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화했다. 광주MBC 뉴스 채널은 구독자가 증가해 5월에 12만 명을 돌파했다. 계획으로는 5.18 44주년 및 광주MBC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송한다. 44년 전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비밀 문건 작성자를 단독 인터뷰했고, 기획보도와 <시사 용광로>에 이은 다큐멘터리 본방송을 제작 중이다. 5월 30일 밤 9시부터 1시간 편성 예정이다. 광주군공항 이전 관련한 집중 보도 및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얼마 남지 않은 광주군공항 이전 논의를 공론화할 것이다. 5.18 영상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빙 작업도 돌입한다. 5.18기록관과 함께 광주MBC 5.18 영상 디지털화 작업인데 방송용 테이프로 보관 중인 영상 자료 650시간 분량을 아카이빙한다. 5.18 연구자 등이 디지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이다.
- 김주호 본부장 : 기타 안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의견이다. 5월 17일에 접수되었는데, 4월 25일(목) 아침 방송 시 가구 관련 광고 송출 중 갑자기 검은 화면으로 바뀌어 5초 정도 방송되었고, 이후 광고와 상관없는 광주 시내 영상이 7초 정도 방송됐다. 이 경우 방송 사고 이후 조치가 필요하지만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방송 사고 발생 시 이를 즉시 알리고 사과방송 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적사항

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 강필오 위원 : -<본방을 보자> 세월호 10주기, 기억은 어떻게 이어져야 할까요?는 지난 10년 동안의 일들을 정리하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를 향한 길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시민분향소를 통해 광주 시민들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안전 사회와 생명 존중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4. 4. 20.(토)부터 4회에 걸쳐 해설위원으로 돌아온 서재응에 대해 <전설의 타이거즈>(유튜브)에서 방송했다. 기아 코치직에서 물러난 심정부터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상, 후보 선수로 주목받지 못하다가 광주일고, 인하대에 입학한 사연으로 시작해서 뉴욕 메츠에 진출하고 팔꿈치 부상과 재활을 거쳐, 아내와의 이야기, 2006년 WBC 태극기 세리머니까지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있어서 좋았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유튜브의 장점을 살려주신 덕분인지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방송이었고, 5월 15일(수) 서재응 특별 인터뷰도 있었다. 야구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 같이 시청하면 좋겠다. <본방을 보자> 월간 본슬랭 가이드, 쌤 편에서는 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특별한 쌤 맛집을 소개해줘 특색있고 좋았다. 닭볶음 월남쌈 마녀쌈과 또띠아 치즈쌈 쭈꾸미 치즈쌈을 소개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길 바란다.

-4월 27일 <열씨구TV>에서는 송가인 오빠로 통하는 조성재 & 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이수자 임재현이 출연했다. 찐친 케미를 보여준 임재현, 조성재의 광주예고 시절과 기악 연습에 미쳐서 진짜 피 흘린 경험담을 방송했다. 아쟁 연주가 보다 송가인 오빠로 통하는 조성재(아쟁 연주가) 씨와 광주예고 시험에서 떨어졌던 임재현 씨 이야기부터 조성재 씨가 아쟁을 시작하게 된 계기, 기악 연습을 하루에 12시간씩 하면서 피를 흘린 경험담을 나눠주셨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국악이라는 주제를 친구들과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진행 덕분에 기분이 좋게 집중하며 즐길 수 있었다.

-3월 18일 공개홀에서 녹화가 진행된 <풍류 달빛 공연> 방송이 5월 19일에 방송되었다. 내용을 찾아보니 2019년 정도부터 시작된 공연이었으며, 내용도 좋고 지역 특색에 맞아서 다시 봐도 좋은 공연이었다. 우리 국악에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 제작을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 나가면 좋겠다. 뮤지션 발굴의 성지, 광주 MBC <난장> 팀을 필두로 아시아 8개국 11개 방송사가 공동 제작하는 글로벌 파워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아시안 탑 밴드>가 라파 국제 공동 제작에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 5월 11일(토)에 개최된 <영산강 그란폰도> 대회를 안전하게 치르느라 고생했다. 방송 예정인 창사 60주년 특별기획 캠페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도 기대된다.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신 덕분에 광주MBC가 나날이 발전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자리를 빌려 좋은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싶다.

- 고아라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 소개한 고령화사회에 유익한 실버 스포츠는 매우 유익한 정보였다. 정보가 부족한 어르신들께도 좋은 계기가 되겠다. 국내 여행은 사실 조금 생소한데 충주 투어 소개가 유익했다. 5월 가정의 달답게 광주 근교에 가기 좋은 카페와 캠핑장 등 도심 근처에서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곳들을 소개해줘 유익했다.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가족이나 친구 등과 함께할 수 있는 여행과 먹거리 등 유익한 정보를 지속해서 소개해 주길 바란다.

-요즘 모든 음악 관련 프로그램들은 후 녹음 또는 튠 등등의 수정이 빈번한데, 인지도 있는 뮤지션의 실감 나는 라이브 무대를 후보정 없이 볼 수 있다는 것이 <난장>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다. 그리고 전체 음향 균형이 매우 훌륭하다. 5월 회차 뮤지션은 가요 및 록 장면에서 인지도도 높고 가창력이 뛰어난 가수들이 많이 나와 눈과 귀가 즐거웠다.

-<남도탐구생활>에서는 5.18 행사 관련하여 사전에 알고 있으면 유익한 정보들을 알려주셔서 유익했다. 5월이면 광주 내외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방송 및 예술 활동들로 아직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왜곡된 인식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5.18 관련 보도나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으면 좋겠다.

- 박선희 부위원장 :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현재는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 가는 듯하다. 대구는 이전 부지

선정 후 사업 시행을 준비하며 대구, 서산 서만금 공항은 내년부터 본격적 착공 들어가는데 우리는 예비 이전 후보 지역도 선정을 못 하고 있어 안타깝다. 더 이상 미뤄지면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만들 수 있는 경쟁 공항들에 물류 등 여러 면에서 빼앗길 수 있는 위기감도 발생하는 것 같다. 장기적으로 지역 상생의 문제인 만큼 위기감 가지고 광주시의 적극적 조치 필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입으로 지역소멸의 문제 벗어나는 등 지역발전 길게 보고 무안군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적극적 자세를 기대해 본다. 앞으로도 광주시와 전남도에서는 통합 신공항 이전 시 여행 접근성 등 유리한 만큼 공론의 장 마련과 지원 대책, 그리고 무안 군민이 염려하는 소음 문제를 이해하고 협조해서 도와줘야 할 것이다. 국가적 사업이므로 총리실 주도의 해결방안과 중앙정부 지원을 위한 국회의원들이 원팀으로 뜻을 모으는 모습도 필요하다. 토론 시 대구 군 공항 부지와 광주 군 공항 최적지 위치 장소, 화면을 자세히 함께 보여주었으면 관심 유도에 더욱 효율적일 것 같다.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하여 계속해서 심도 있는 보도를 해주길 바란다.

-<시사 용광로> ‘끊임없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은?’ 편을 시청했다. 후세들에게 역사적 평가와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진상조사 규명위원회의 정확한 조사나 고증, 기록이 필요할 것 같다. 역대 정권의 지역 간 정치적 악용을 막고 특히 정치권과 기득권의 갈라치기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도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역사적 가치와 공감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사회적 합의가 확산한 만큼 고통 받은 사람들 상황을 이해하고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계속된 노력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5.18은 특정 지역 사람들의 점유물이 아닌 전 국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대와 협치의 모습 보여야 하며 5.18 민주화 44주년을 맞이한 올해에는 5.18 왜곡 막기 위해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기록 수록도 이제는 꼭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짚어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김안나 위원 : -5월 21일 <남도탐구생활>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열사들의 희생을 취재해 보도해 줌으로써 5·18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들의 희생을 추모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템플 라이프를 소개했는데 국내 반려 인구수가 갈수록 느는 사회추세를 반영하듯 다양하게 개발되는 새로운 프로그램 소개가 참 유익했다. 5월 16일 <시사 용광로>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 토론을 통해 5.18 헌법 전문 수록 의제화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 좋은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다양한 보도를 바란다. <본방을 보자> 뉴스본방은 매일 주요 뉴스들을 모아 전달해주니 너무 유익하고 뉴스가 재미있다.
- 김영신 위원 : -<시사 용광로>는 광주·목포·여수MBC 기자들이 한데 뭉쳐서 중요한 지역 이슈와 시사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지역민들이 평소 궁금해했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으로서 잘 알아야 하는데 미처 잘 알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주어서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5월을 맞아 “끊임없는 5.18 왜곡 정치권의 역할은”이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방송하였고, 패널로는 유승민(국민의힘 전 의원)과 박구용(전남대 교수)이 참석하여 적절한 토론을 펼쳐 주었다. 특히 보수정당의 대표 격인 유승민 전 의원이 참배까지 하고 본 토론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5.18의 정신에 대한 것에는 적극 동의하면서 5.18 왜곡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었다는 점에서 인상 깊었다. 보수정당과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측에서 5·18 정신이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방송이었다. 5.18에 관한 관심을 계속 가져주길 바란다.
- 송경용 위원 : -<광주MBC 보다> 안전 EXPRESS 여수 안전 체험교육장을 시청했다. 7개의 체험관과 9개 테마존으로 구성됐으며, 70여 개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 입장료 또한 근로자 학생 직장인 희망하는 누구나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무료다. 안전 체험이 가능한 산업안전 1 체험관은 제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용 장비들을 직접 운행해 보며 사고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들을 경험하고 안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체험관을 소개해 주었다.

두 번째로는 산업안전 체험관 2로 직업병 예방 공간, 안전 보호구, 안전모, 미끄럼 방지 등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고 사고 예방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인지시키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줘 좋았다. 5월 가정의 달로 가족과 함께 놀기도 하며 배우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해 주어도 좋을 것 같고 설명해줄 때 주변 주차장과 공휴일에는 쉬는지 또한 알려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5월은 가정의 달인 만큼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나 함께 갈 수 있는 식당을 소개해 주어도 좋겠다.

-<뉴스데스크>에서는 놀이문화까지 삼김 5.18 왜곡에 대해 보도했다. 인기 온라인 게임 ‘보블 렉스’를 신고한 어린이에게 광주시는 5.18 ‘왜곡 근절 공로’ 표창 수여식을 진행하였다. 5.18 왜곡 전담 모니터링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 1,359건 삭제 요청, 제보 194건 중 30건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5.18 사건 왜곡 뉴스를 통해 시민들의 신고 정신을 높일 수 있어서 좋았다. 뉴스를 통해 더 다양하게 5.18을 알릴 수 있도록 역사에 관한 뉴스를 더 알려주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5.18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뉴스를 지속해주길 바란다.

- 오광호 위원 : -유튜브, SNS 등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요즘, 우리 지역의 뉴스, 우리 동네 소식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음을 느낄 수 있다. 새롭게 방영하는 <남도탐구생활> 프로를 통해 지역 밀착형 콘텐츠와 지역 집중 소식 등 지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유용한 소식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 반가웠다.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 채팅방을 통해 시청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꾸며 나가는 모습도 좋아 보였다. 또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소식을 전하는 지역신문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탐구생활군’ 프로에서는 지역신문의 담당자가 직접 나와 실시간으로 담양군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담양대나무축제 등 축제 관련 사항들을 자세하고 다양하게 전달해주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연결상태가 좋은 편은 아니어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지역의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바란다.

-<테마기행 길>에서는 충청북도 제천의 의림지들 에코브릿지를 시작으로 영상이 시작되었다. 낮선 이름과 모습에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였다. 삼한시대의 수리시설인 의림지와 2천여 년 동안 의림지의 물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던 제천의 모습들을 영상에 가득 담아주었다. 에코브릿지를 중심으로 약 2km가량의 산책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특색 있게 산책길의 양쪽이 모두 벼를 심어놓은 논이었다. 수확시기가 되면 황금 들판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용추폭포가 흐르는 위로 유리 전망대 다리가 설치되어 있어 시원함과 스릴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방문하기에 좋아 보였다. 가까이에는 고대에 축조된 의림지의 역사, 구조, 생태 등을 알아보는 전문 박물관인 의림지 역사박물관도 둘러볼 수 있었고 이곳에서는 제천의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유물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었다. 최근 가족 관람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청풍호반 케이블카 또한 청풍호를 손쉽게 둘러볼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듯싶다. 충북 제천의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 거리 등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에 걸쳐 소개되는 것을 보고 우리 지역과는 조금 먼 곳이지만 한 번쯤 구경하러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다. 지역의 관광과 먹거리 정보도 다뤄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하길 바란다.

- 이상길 위원 : -<남도탐구생활> 조선대 장미원 등을 소개했다. 조선대 장미원은 이 시기에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축제를 소개해 주니 좋았다. 또한 소개할 때 역사까지 언급해 주니, 더 의미를 알고 방문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장미원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와, 포토존까지 이 방송을 보고 방문한다면 장미원을 더욱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전문가뿐만 아니라 방문한 시민들의 인터뷰도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알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과 마찬가지로 인터뷰 때 자막이 있었더라면 더 보기 편했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있다. 뉴스탐구생활 코너에서는 화순군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를 소개했다.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까지 알려주었다. 이걸 소개함으로써 더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 광주형 일자리 캐스퍼 광주에서 외면 편에서는 광주의 세금을 크게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서 판매가 현저히 적은 걸로 나타났다는 걸 알게 됐다. 이 방송을 통해 캐스퍼가 광주에서 탄생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다. 그로 인해 광주 사람들이 캐스퍼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 것 같아 좋은 영향으로 이어질 것 같아 기대된다. 교직 생활 32년, 박주정 선생님의 유별난 학생 사랑은 인상 깊었다. 스승의날을 맞아, 멋있는 선생님을 소개해 주는 영상이었다. 선생님의 제자들까지 나와 좋고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스승의날을 맞아 이런 영상을 통해 선생님에 관한 감사함을 한 번 더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훈훈한 미담을 발굴해 계속해서 소개해 주길 바란다.

- 이숙희 위원 : -5.18민주화운동이 44주년을 맞이하였다. 아직도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미결된 문제를 안은 채로 44년을 지내왔다. 우리는 이 문제를 정확히 매듭지어야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순간순간 잔돌 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5.18 진상조사 위원회와 광주문화방송은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다. ‘체로키 파일’에 깜짝 놀랐다. 기막힌 방향성에 경의를 표한다. 미국 인터뷰이는 93세에도 정확히 기억했다. 미국에 보관 중인 진실의 역사가 하루빨리 공개되어 그간의 불신을 지우고 44년의 흑역사가 헌법에 수록되어 국가 권력이 더 이상 국민을 희생시키는 아픔이 없기를 기원한다. 관련 보도가 더욱 활성화돼 진실을 규명하기 기대한다.
- 임동훈 위원 : -<광주MBC 보다>에서 소개한 제주 봄을 대표하는 고사리 축제가 인상 깊었다. 초록의 제주 들녘을 보며 힐링이 되었다. 쉽게 사 먹는 고사리도 적절한 시기에 꺾어서 삶고, 쓴물을 우려내는 과정을 보며 음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인 것 같다. 자연에서 나는 봄나물이나 꽃으로 제철 재료를 이용한 제철 음식연구회인 인재의 내린 음식연구회원들이 향토 밥상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과 이웃과 함께 나누며 먹은 모습 아름다웠다. 광주 북구 연제동의 돼지고기 뒷고기 요리와 닭구이 모음에 해초를 이용한 여러 가지 찜과 채소를 곁들여 함께하는 발상의 전환이 새로웠다. 월계동의 매운 갈비 요리와 삼겹살 요리가 고기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법도 알게 되었다. 폐교를 활용한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 변신하는 모습을 접하게 되어 다채로워 좋았다. 한지 만드는 체험과 안전 체험관은 어린이들에게도 체험 교육을 통한 체험과 배움의 교육장이 되어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다. <광주MBC 보다>를 시청하며 다양한 종류의 볼거리를 보면서 지역의 소식 접하게 되어 관심을 유발하는 효과 큰 듯하다. 지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다뤄주길 바란다.
- 조경완 위원장 : -그동안 광주MBC는 시청자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방송에 반영해왔다. 위원회의 의견은 곧 시청자의 의견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시청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주신 광주MBC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매월 월례 회의를 열고 진행하느라 수고해주신 실무부서에도 감사드린다.
- 김낙곤 사장 : -1년 동안 수고하셨다. 적극적인 위원님의 의견제시와 시정 요구가 있어 광주MBC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동안 시청자위원의 책임을 성심성의껏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